안산 시승격 30주년
1000년의 숨 30년의 땀 100년의 꿈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NO. 430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blog.naver.com/cityansan
ⓕ facebook.com/ansancity3
ⓣ twitter.com/ansancityhall
ⓢ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11월 9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2016. 11. 09

19000개의 자연석으로 거듭난 노적봉 폭포

10월31일 재개장한 노적봉폭포 전경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2 안산구경 노적봉폭포
국내최대의 자연석 폭포로 거듭나다

4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
일자리정책과 부서탐방 및 취업성공사례

8 학교 밖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다
안산미래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인터뷰

12 우리가 매점 주인이에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신길고 매점탐방

안산구경(九景)
노적봉공원 폭포

국내 최대의 자연석 폭포로 거듭나다

산의 모양이 '노적가리(곡식 더미)'를 깔아 놓은 것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노적봉공원은 성포도서관, 단원미술관, 청소년수련관 등 다양한 편의 시설과 볼거리로 안산시민이 즐겨 찾는 안산구경(九景) 중 하나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 아카시아 향과 나무 그늘이 넓게 퍼지는 여름, 단풍 드는 가을, 하얀 눈으로 뒤덮인 겨울 등 노적봉의 사계절은 비발디의 '사계(四季)'처럼 어느 한 대목도 빼놓을 수 없다.

약수터 옆 개구리습지에서는 수초들이 자라고, 소나무 숲의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걷다 보면 수령 백년이 넘도록 한 자리에 서 있었을 음나무(엄나무)를 만난다. 귀신을 쫓는다는 음나무 옆에서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함께 마을을 지킨다. 음나무 옆길의 '숲속 생태학습장'은 주민들의 나눔으로 조성되어 마을 전체가 한 아이를 키우는 표본이 되고 있다.

> "산책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느덧 폭포 위 절경"

지난 10월 31일, 노적봉공원 인공폭포가 자연석 폭포로 재조성되어 준공식을 가졌다. 2004년 11월 인공암으로 조성된 노적봉공원 폭포는 시설 노후화로 2014년 10월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반영구적이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시설물로 재조성하고자 2015년 9월 기술검토를 거쳐 공법을 확정하고 올해 3월, 자연석 쌓기 공법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폭포 재조성 사업은 화강암 목화석 계통의 자연석 5천9백 톤을 조달관급으로 분류하여 공사와 별도로 구매계약을 하고, 철저한 현장검수를 통해 양질의 자연석으로 다시 공사했다.

총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폭 114미터, 높이 17미터로 조성된 폭포는 전망대와 포토존, 돌계단 산책로, 수변 데크(deck), 파도 웨이브 분수대, 폭포를 금빛으로 형상화한 야간조명 등을 갖춰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석 폭포시설을 갖췄다.

준공식에서 '와리풍물단'이 상쇠를 따라 폭포 옆 돌계단을 오르며 길굿 행진을 하자 그 신명나는 소리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관중석에 자리를 잡는다. 이어 '안산시립국악단'이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들려주며, 시월의 마지막 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아로새긴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도, 물줄기를 비추는 조명도 악기의 울림처럼 아련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관계자, 각 기관 단체장을 포함한 안산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연에서 구한 돌 1,900여개를 직접 심혈을 기울여 쌓아올렸다. 폭포 뒤쪽으로 난 산책길을 따라 올라가면 폭포 위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내려다볼 수도 있는 노적봉 폭포가 좋은 휴식처가 되어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공식을 마친 후 낙엽을 밟으며 삼원색 가로등 아래 노랑 빨강 장미가 색색이 피어 있는 장미원으로 향한다. 팔짱을 끼고 꽃길을 따라 귀가하는 중년부부의 뒷모습이 따스하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시화간척지(대송단지) 습지 탐방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가을색이 다시 바람에 실려 습지를 물들이다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구름이 해를 가려 날은 흐리고 바람은 제법 선선해 옷깃을 세웠지만, 온통 갈색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을 숨길 수는 없었다. 오랜만에 개방된 대부도 시화간척지에선 갈대와 철새가 제 멋대로 흥에 겨워 춤을 췄고, 풍경을 담기 위해 셔터를 누르는 관광객의 마음은 가을을 만끽하는 중.

10월부터 3월까지 130여 종 20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오는 곳, 대부도로 오세요

핑크빛으로 물든 2층 버스가 온다. 옆엔 안산시티투어라 적혀 있고, 2층은 시원하게 시야를 확보한 유리창. 닫혀 있던 철조망이 열리자 버스가 여유롭게 움직인다. 왼쪽에는 시화호가 오른쪽엔 갈대밭이 가을볕에 빛난다. 인기척에 놀랐는지 때마침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오른다.

널찍한 테이블과 함께 오순도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1층을 지나, 한쪽에 마련된 계단을 오르자 마흔 석 좌석을 가득 메운 엄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또, 차창 밖을 향해 잇따라 터지는 '타타타타타~탁' 셔터 소리가 경쾌하다.

관광해설사의 설명이 이어진다. "이곳 대송습지에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약 130여 종, 20만 마리의 철새가 관찰되며 원앙, 큰고니, 흑두루미 등 천연기념물과 안산시의 상징새인 노랑부리백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엄마와 아이들은 신이 나 뛰어내린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과 그 위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철새들의 분주함이 아이들 웃음소리에 섞여 한 편의 가을 소나타를 연출한다.

서울 보라매초등학교 2학년 같은 반 친구들끼리 떠나 온 '안산으로의 여행'은 무척 편하고 즐거워 보였다. 두 딸과 함께 광화문에서 안산시티투어 2층 버스를 타고 출발한 유정화 씨는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은 너무 멀어서 아이들이 지칠까봐 부담되는데 안산은 가까워서 당일여행으로 최적지인 것 같다."며 "오전에 갯벌체험도 하고 대송습지에서 철새도 보니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한다."고 말했다.

한창 신나게 조잘거리며 친구들과 함께 사진 찍기 바빴던 아이들을 태운 '2층 버스'는 다음 목적지인 시화호조력발전소로 향했다.

안산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서울 광화문사거리와 안산 중앙역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 중이며, 안산 시내 및 대부도 관광을 비롯해 각종 체험관광 코스도 마련돼 있다. 또한 20명 이상의 단체일 경우 코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대부도 관광 문의는 안산시청 관광과로 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관광과 (031-481-2354)

1. MBC '생방송 오늘 저녁' 촬영팀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박종홍 관광정책계장.
2. 대부도 습지에 날아온 저어새들이 한가로이 고기를 잡고 있다.
3. 서울 광화문에서 2층 버스를 타고 대부도로 관광하러 온 보라매초등학교 학생들이 철새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시민우선행정, 우리과(科)를 소개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는 곧 복지라는 생각으로 매년 2만5천 명의 취업을 목표합니다”

‘경제가 참 어렵다.’ 서민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흔한 문장이다. 더구나 한 두 해도 아니다. 언제부터 힘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다. 그나마 직장인들은 좀 나은 편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도 엄존한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미래가 없어 걱정이고, 같은 처지의 장년은 가정이 위태로워 밤잠을 설친다. 생명연장의 꿈은 많이 이루었지만 이는 또 다른 실업률을 높이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그만큼 더욱 중요해졌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 말하는 안산시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문양교 과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면?

‘일자리는 복지다’라는 시정 슬로건 아래 일자리 창출과 고용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도 마련돼 있고, 이의 실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복지를 위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계, 노동정책계, 사회적경제계, 일자리센터 등 4개의 팀에서 총 21명이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연 2만5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최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해 달라.

현재 산업단지 내 상시 근로자 중 안산이나 시흥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통근하는 근로자가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대부분 50인 미만의 영세 소기업이 대다수다. 즉, 먼 곳에서 출퇴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별도의 통근버스를 운행할 여력이 안 되는 것이다. 기숙사도 마찬가지다. 이에 영세 소기업 근로자의 주거환경과 통근 문제를 개선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사업으로,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를 일부 지원하고 공용 통근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Q 우리시가 청년 취업자 비중에서 전국 최고라고 발표됐다. 현황은.

올해 취업자 수 34만 8천 명을 목표로 했다. 2016년 상반기 고용조사에 따르면 우리시의 취업자 수가 35만 3천 명으로 조사됐다. 그 중 청년 취업자 비중은 18.1%로 전국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됐다. 이는 우리시가 반월시화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기업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인 · 구직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체를 위한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각종 고용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단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

Q 중·장년층을 위한 ‘4050원스톱 일자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소개한다면.

안산시청 민원동 2층에 마련된 안산일자리센터에 ‘4050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면서,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복지지원 연

919취업광장으로 입사한 **김주현 씨**(한샘이펙스 근무)

"취직 후 인생이 많이 전진한 느낌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안산으로 이사 온 김주현(32세) 씨는 이후 관산초, 시곡중, 안산공고, 신안산대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 전부를 안산에서 마친, 말 그대로 '진짜' 안산시민, 차세대 안산시민이다.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지만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김주현 씨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일을 도와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결과는 좋지 못했고, 취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때쯤,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919취업박람회'를 알게 됐다. 곧바로 찾았고,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본 후 즉시 입사가 결정됐다.

꿈꾸던 취업에 성공한 것. 이에 대해 김주현 씨는 "바로 면접까지 볼 수 있는 919취업박람회를 진작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산시를 통해 취업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전까지 인생이 정체돼 있었다면 지금은 많이 전진한 느낌입니다. 올 12월에는 결혼도 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씨에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애인이 있다.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차마 결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가능하다. "우리 결혼하자"

인조대리석을 가공해 주방 인테리어와 가구를 제조하는 한샘이펙스(대표 최양하, 단원구 원시동 소재) 내수부에서 선반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김수현 씨는 신입사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아직 수습사원이라 한 사람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첫 직장이라 힘들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 사람 이상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신부에게 전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사랑하는 수진아! 아무것도 없는 나를 믿어 줘서 고마워. 앞으로 하나님 아래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창업을 희망할 경우 경기도 창업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소개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를 통한 다양한 직업훈련이나 정신건강센터의 심리상담 등 전문 서비스를 연결해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동행면접, 상설면접 등과 함께 특히 중 · 장년층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지원프로그램 교육 등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Q 퇴직자(노인, 실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일자리를 민간부문에서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이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에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50세 이상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퇴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Q '맞춤형'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산업단지 내 원단 검사업체의 인력난과 경력단절여성의 구직 수요를 맞춘 여성 기능인력 양성사업이나 건설기능인력 수요와 실직자를 연계한 용접 기능훈련사업, 50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위한 공공 취업연계 '일드림'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계층별 인턴사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도 맞춤형 정책 중 하나다.

Q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 등도 관심이 간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 등이 그것이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주민 주도의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원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지정된 마을기업은 연차별 최장 2년까지 1차 년도 5천만 원 이내, 2차 년도 3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와 함께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내년 일자리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 달라.

내년에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청년 실업해소 및 일자리창출일 것이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청년층 취업률 향상을 위한 각 프로그램운영과 함께 기업현장 실습 등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높여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양교(안산시 일자리정책과장)

안산形 강소기업 육성 현장을 가다③

(주)성호텍스콤

“스마트폰, 태블릿, 헤드폰에 옷을 입힙니다”

홍상진 부사장

Q ㈜성호텍스콤(대표 최찬영)은

2009년 7월 창립해 IT기기용 내 · 외장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창립 초기에는 임가공업을 해오다가 회사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제조업을 시작했다.

각종 편성물(編成物) 후가공 설비를 보유한 전문 업체로, 연 100만m2(2014년 기준)의 원단을 생산해 삼성, LG, MS 등에 납품한다. 또한 원단 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있다.

Q “날씬해야 한다” 슬림한 기기에 맞춘 슬림 스킨커버 개발

“배터리는 스마트폰의 ‘계륵’이다.” 뱉지도 삼키지도 못한다. 사용 시간을 늘리려 배터리 부피를 키우면 ‘스타일’이 안 살고, 디자인을 살리자니 배터리 용량을 키울 수 없다.

“스마트폰을 디자인할 때 가장 고민되는 건 두께”라는 말이 있다. 태블릿PC 케이스, 헤드폰 커버, 스마트폰 케이스 원단을 만드는 성호텍스콤도 같은 고민을 한다.

스마트폰 디자이너 못지않다. 스마트 기기를 보호하는 스킨커버(skin cover)도 날씬한, 슬림(slim) 기술을 구현해야하기 때문이다.

성호텍스콤은 고품질의 인조피혁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즉, 기존 제품의 단점인 두껍고 신축성이 떨어지며 통기성도 낮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차별화된 새로운 제조공정을 도입했다.

결국 ‘두께가 얇으면서도 신축성과 터치감이 동시에 확보된 인조피혁제품’을 개발한 것이다.

Q “얇게 더 얇게” 초박지 인조피혁 개발

현재 스마트 기기용 스킨커버의 두께는 약 0.7㎜ 수준이다. 성호텍스콤은 국내 최초로 초박지(real micro, 매우 얇은) 편성물 제조 및 후가공 기술을 개발해 0.5㎜까지 구현해냈다. 성호텍스콤의 초박지 편성물 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은 0.35㎜까지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킨커버 편성물은 간달히 말하면 ‘접합–코팅–박리’공정으로 이뤄진다. 연구팀은 세 단계 중 접합 단계까지 기술을 완료한 상태이며 두께 0.1㎜를 줄이기 위해 모든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사용하는 원사보다 더 얇은 원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원단이 너무 얇으면 원단에 붙은 코팅지를 떼어낼 때 원단에 주름이 가거나 로프(rope)처럼 늘어지기 쉽다. 현재 편성물의 지지가 가능한 원단을 개발, 접합과 박리 단계를 잘 견딜 수 있는 원단을 선정해야 하는 과정 중에 있다.

둘째, 편성물과 배킹(backing, 안감) 원단의 점착 본딩 공정 기술과 IT기기 스킨커버 용 초박막 습식코팅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천연피혁을 능가하는 고품질 및 고감성의 인조피혁을 개발해 천연피혁이 가지지 못하는 방오성(오염에 대한 저항성), 스크래치에 대한 내구성, 소프트 터치감 및 경량성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Q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키울 것

성호텍스콤 홍상진 부사장은 “이번 강소기업 지원으로 여러 가지 분석 및 제품 개발과 관련한 바탕을 마련해주어 큰 도움이 됐다.”며 “IT 내 · 외장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가 되도록 기술력을 키우고 새로운 분야를 창출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남창우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성호텍스콤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스마트 기기 시장뿐만 아니라 프린트 가공기술을 접목할 경우 의류 시장과 생활용품, 산업용 소재 등 마감재 산업 발전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면서 국가 브랜드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 문의 : ㈜성호텍스콤(031–491–2387, 주소 : 단원구 산단로 19번길 22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 '제1회 중독예방 웹툰 공모전' 개최

사람을 옥죄는 중독… 그 원인과 예방, 치유법을 공유하다

사람을 옥죄는 중독의 원인과 예방, 치유법을 공유하기 위한 '제1회 중독예방 웹툰 공모전'이 열렸다.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친숙하게 여겨지는 만화로써 중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웹툰 작품을 공모했다. 알코올이나 약물, 스마트 폰 등 특정한 물질이나 행동에 지나칠 정도로 빠져들어 삶을 허물어뜨리게 되는 중독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는 주제의 작품 모집에 중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안산시민이 참여했다. 공모전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파급효과, 메시지 전달의 명확성을 중점으로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총 15작품의 수상작을 발표하고 11월 4일 시상했다. 대상은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재학생 4명이 뭉친 shin팀의 '死인'이 차지했다. 염라대왕 앞에 불려간 사람이 자기가 운전 중 스마트 폰을 사용하다가 사고로 저승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과 후회를 금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눈을 떠보니 꿈이어서 주인공은 다시는 이동 중에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최우수상은 안산시 시정방송국 5기 웹기자로 활동했던 윤혜린 씨의 '인스턴트 행복'과 선일중학교 1학년 최지애 양의 '인터넷 중독 탈출'이 선정됐다. 인스턴트 행복은 퇴근길 한 잔의 술로 직장생활의 괴로움을 덜던 회사원이 알코올이 주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해방감에 비해 부작용의 폐해가 너무도 큼을 절실히 느끼고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알코올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위사람들과 관계의 회복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우수상에는 LK207팀의 '스마트폰 세상', 알코올 중독문제를 다룬 이진주 씨의 '알고 보면 이런 일상도'가 뽑혔다. 인터넷 중독을 그린 임근영, 김민영, 이영현, 이희혁 씨와 알코올 문제를 다룬 자두자도 팀이 입선에 올랐고, 주성희, 이세환, 유나경, 한정운, 최산하 씨가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아차상을 받았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에는 각각 상장과 상금 백만 원, 오십만 원, 삼십만 원이 주어졌다. 입선과 아차상도 상장과 상금 십만 원과 오만 원이 수여됐다.

신철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중독은 건강한 일상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 대신 특정 물질이나 행동에 의존해 안도감을 찾는 것으로 중독에서 벗어남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며 많은 사람이 즐겨보는 웹툰으로 중독의 원인과 예방, 치유법 등을 공유하고자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했다. 센터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을 중독관련 예방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인 중독과 관련한 상담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야간 상담도 가능하다. 모든 상담과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 문의 :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1-411-8445~6)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초지동 둔배미생활체육관 개관

"운동은 물론 음악회도 즐길 수 있는 공간 될 것"

초지동 둔배미공원(초지동 723-1번지)에 생활체육관이 들어섰다. 지난 10월 28일 준공식을 갖고 프로그램 정비에 나선 둔배미생활체육관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상 1층 규모(연면적 679.36㎡)에 배드민턴장 3면, 배구장 1면, 샤워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초지동 일대에 기후에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관이 건립돼 반가운 분위기다.

초지동에 사는 박경일 · 홍미경 부부는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수암동이나 와동까지 갔었는데 가까운 곳에 생활체육관이 생겨 너무 좋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후 함께 운동하는데 건강도 챙길 겸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라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규모는 작지만 다목적으로 사용해 효율을 높이는 체육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배드민턴, 배구 등 운동은 물론 음악회 같은 다양한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 체육관에서 건강도 챙기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풍성히 열려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둔배미생활체육관 이용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다. 올 12월까지 주중에 일일 자유 입장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전용대관이 없을 경우 개인이 사용(09시~18시)할 수 있다. 단 월, 수, 금 야간(18시~20시)에는 배구전용대관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대관은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하며 대관 4시간, 개인 2시간 기준(1,320원)으로 체육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수요가 많은 댄스스포츠, 웰빙댄스, 라인댄스, 배드민턴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육관 관리팀은 "이용자들을 처음부터 백 프로(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며 체육관 운영의 조기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둔배미생활체육관 고객지원실(031-487-5674)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대관사용료]

		체육경기(행사)		일반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대관	주간	30,800	46,200	61,600	92,400
	야간	39,600	59,400	79,200	118,800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야외 활동 시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야외 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문 의 : 상록수보건소(☎ 481-5938)
단원보건소(☎481-3475)

만났습니다

박지현 바이올리니스트

- 안산미래인재육성재단 학교밖청소년 장학생

"행복 나누는 연주가로서,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줄래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발굴 ·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안산미래인재육성재단(이하 인재육성재단)은 '학교밖청소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학을 유예하거나 포기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이어가거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백만 원 이내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인 박지현 학생(18세, 팔곡동)은 자신의 간절한 꿈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제도에 고마움을 전했다.

"어렸을 때, 필리핀으로 봉사를 갔던 기억이 나요. 집이 없어 공동묘지에 무리지어 사는 아이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었는데, 저를 바라봤던 그 빛나는 눈동자가 잊히질 않아요. 딱딱하게 굳어 있던 아이들의 표정에 점점 생기가 돌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부터 행복을 나누는 연주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라고 회상했다.

이어 "집안 사정으로 바이올린을 포기할 뻔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밥 먹는 것도 포기할 테니 연주만 하게 해달라고 버텼었죠. 정말 간절한 꿈이었어요. 그 꿈을 향해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도 받은 만큼, 그 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박지현 학생은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수능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틈틈이 안산의 아동센터나 암 병동에 재능을 기부하고 있을 정도로 봉사에 대해서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인재육성재단은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원비, 학업과 관련된 활동,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수강료 등을 연차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원대상의 나이가 스물두 살(22세)로 확대되었다. 접수기간은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원방법은 재학 학교장 및 관련 단체장의 추천서와 미래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인재육성재단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안산미래인재육성재단(070-4400-8579)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52)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단원구, 가상현실(VR)로 즐기는 '산책숲길9경'

"실제 숲 속을 거닐며 산책하는 것 같아요"

단원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체험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단원구는 가을이 찾아온 '단원 산책숲길 9경'의 모습을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360도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사진으로 제공한다. 일반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단원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언제든 아름다운 풍경들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1경인 '봉황산 정다운 숲길'. 나지막한 산허리를 가로질러 동네와 동네를 연결해주는 지름길은 와동체육공원에서 강서고까지 이어진다. 2경인 '학교가는길과 원고잔공원 산책길'에서는 화정천과 나란한 연립주택 풍경과 함께 하늘 높이 향한 나무들을 볼 수 있다.

비밀의 화원인 3경 '중앙공원 태봉 옛길'은 시청 뒤 태봉산을 공원으로 만든 곳으로 경안고 옆 당곡운동장 왼편으로 오르는 길이 있다. 자동차도 다닐 수 있고 주차장도 있다. 4경 '수인선 철로변길'은 고잔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1㎞ 폐철도 길이다. 지금은 협궤열차가 다니던 길에 구절초 등 야생화가 자라는 꽃길이 조성되었고 아련한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남았다. 5경 '백운공원 황토둘레길'은 초지역 뒤편 2.9㎞에 이르는 산길이다. 중소기업연수원 건너편으로 나있는 공원입구에서부터 구불구불한 산벚꽃 가로수 길을 걸어 전망대에 오르면 화랑유원지 등 선부동 일대가 한 눈에 펼쳐진다.

6경 '관산공원 둘레길', 7경 '화랑유원지와 화정천 산책길', 8경 '신안산대학교 캠퍼스길', 9경 '화정동 꽃우물길'도 있다.

☎ 문의 : 안산시 단원구청(031-481-678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지구도 살리고 현금도 받아가세요"

안산시 탄소포인트제, 시민참여율 경기도 '으뜸'

안산환경재단은 시민과 함께 지속 · 발전 가능한 숲의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사용 량을 줄이고,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시민 참여 실천 프로그램이다.

즉,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양이 과거 2년간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5%이상 절감되었을 경우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연간 최대 3만7천 원, 분기별로는 1만6천5백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란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녹색운동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동참하며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안산환경재단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안산시민의 협력에 힘입어 올해 경기도에서 '시민 참여율 1위'라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안산환경재단은 "11월경 전국 최초로 가정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관내 동 주민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라며 안산시민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www.cpoint.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안산환경재단,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환경재단(031-599-9411)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일상에 찾아든 **작은 행복… 문화택배**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산업과 예술이 만나다"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은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문화예술의 향기를 불어 넣고, 근로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 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2016 문화재생 사업은 근로자 아카데미 '예술풀이', 공공미술프로젝트 '아트 인 팩토리(Art in Factory)', 찾아가는 공연 '유쾌한 문화택배'로 구성됐다.

지난 10월 14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근로자 아카데미 '예술풀이' 강좌에는 많은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참여해 목공, 사진, 우드버닝(Woodburning), 캘리그라피(Calligraphy), 도예 작품 전시회 등의 문화를 향유했다.

이어 11월 2일에는 '유쾌한 문화택배'가 안산스마트허브 내 ㈜뉴플렉스를 찾았다. 서둘러 점심을 먹은 근로자들이 강당에 모여 호기심어린 눈을 반짝이는 가운데,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한 두 명의 청년이 등장했다. 몸짓과 표정만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마블러스 모션'의 동작을 따라가며 관객들은 눈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반전의 순간에는 함께 박장대소하기도 했다. 마블러스 모션은 '마임'에 음악, 노래, 무용 등 '뮤지컬'을 결합한 '마임컬'을 제작해 9년째 공연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예술 장르다.

이어서 퓨전국악팀 '시즌 오브 소울(Season of Soul)'이 바이올린과 대금,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뉴플렉스 기술팀의 이홍선 씨(38세)는 "공연이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직원들이 무대에 나와 함께 즐기는 것을 보며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회사에 오래 다녔지만 이런 행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경품도 받아가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한 ㈜뉴플렉스 총무팀 사원은 "전 직원 450명 중에서 1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며 "점심시간을 이용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직원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보람이 크네요. 회사 측에서도 다양한 경품을 준비해주어 고맙고, 5일짜리 유급휴가를 받은 경품 당첨자가 제일 부럽습니다."라며 웃었다.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은 근로자들에게 '문화'라는 놀이를 제공하고, 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삶의 주인이 되고 문화생산자로서 주인공이 되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삭막했던 공단에 '문화'라는 이름의 꽃을 피워내고 있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031-481-0525)
안산시 산업정책과(031-481-285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크리스마스 칸타타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

지난해 총 25개 도시 10만여 명의 미국인들에게 기립박수로 큰 호응을 얻었던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오는 11월 19일(토) 안산을 시작으로 전국 21개 도시를 찾아간다.

이야기풍 가사를 바탕으로 한 여러 악장의 성악곡을 가리키는 '칸타타(Cantata)'는 독창 · 중창 · 합창 등으로 이루어진다. 1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오페라, 2막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족 뮤지컬, 3막에서는 헨델의 〈메시아〉 등의 명곡 합창을 통해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순회공연의 수익금은 아이티와 아프리카 몇몇 나라 등 어려운 나라에서의 자선공연 및 국내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에 사용된다.

☏ 문의 : 그라시아스합창단 사무국 1899-2199
• 예매 : 인터파크티켓 ticket.interpark.com

11 Culture Calendar

☏ 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단원미술관(031-481-0505)

단원미술관 대관전시

한국화의어울림과 색다름전
일시 10.31~11.6
장소 2관

안산도예사랑전
일시 11.7~11.13
장소 2관

아뜰리에전
일시 11.7~11.13
장소 2관

경기창작센타제3기 안산시입주작가전
일시 11.21~12.4
장소 2관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5 **합창 <까르미나 부라나>** 일시 2016.11.5(토) 5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7	8	9			12 **오페라 <마술피리>** 일시 2016.11.12(토)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14	15	16	17 **2016 "안녕?!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운명처럼>** 일시 2016. 11. 16(수) 7:30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18	19
	21		23 **안산시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일시 2016. 11. 22.(화)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24 **뮤지컬 <더 넥스트 페이지>** 일시 2016.11.24(목) - 26(토) 목 7:30PM, 토 3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26
	28		30			

Interview

인문학으로 광고하는 **박웅현**

밥 먹을 땐 먹고, 쉴 땐 쉬고, 개처럼 살며 '현재를 붙잡아라'

지난 11월 3일, 광고인이자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책은 도끼다」, 「여덟 단어」의 저자인 박웅현 작가가 감골도서관을 찾았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람을 향합니다' 등의 인문학적 감수성을 담은 박웅현 작가의 광고는 조선일보 광고대상, 진로광고대상 등을 수상하며 광고계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켰다. 이날 박웅현 작가는 '내 삶을 움직인 책'을 주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를 주었던 책 속 문장들을 청중과 함께 나누며, 매순간을 소중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Q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 문장은 무엇인가요?

A '하루의 매순간, 그대는 신을 송두리째 다 가질 수 있음을 알라'는 문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에 나오는 이 문장은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말라. 사후의 천국이나 더 좋은 이상을 기대하지 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쏟으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억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뭔가를 박탈당한 후에야 그것이 행복이었음을 알고 후회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Q 현재 유명한 광고인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A 초등학생 때는 대단한 꿈은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주목하지 않기를 바랐고, 엄마한테 야단맞지 않기 위해 성적을 올려야했었죠. 중학생이 되면서 뭔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고등학생 때 신문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저널리스트, 칼럼니스트라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Q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미래를 불안해하는 청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A 청춘들이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른, 마흔이 되었다고 갑자기 뭔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 숫자에 함몰되지 말고 초조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생은 '42.195킬로미터'의 긴 마라톤입니다. 학업, 독서, 영화, 여행 등 나를 쌓는 일을 하면서 많이 웃고 눈물을 많이 흘려줄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Q '나'에게 충실하다보면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사회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는 말인데요. '자리'가 '이타'를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챙겨야 내가 편안하고, 내가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합니다. 가정생활 이후 사회생활이 있는 것이죠. 사회생활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돈과 대학도 수단이죠.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BMW 속의 불화와 마티즈 속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Q 독서 교육에 관해 조언하신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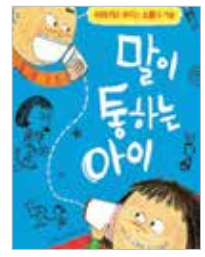
A 한 번만 울게, 한 번만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지 않아도 돼요. 한 권이라도 읽고, '아 정말 좋네', '이 책 정말 대단하네'라고 느끼면 돼요. 문제는 더 많이 집어넣으라고 닦달하는 학부모와 교육 시스템이에요. 학생들은 유기체인데, 기계로 보고 있어요. 어떤 컴퓨터 용량이 더 크냐고, 자꾸 따지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책의 입구를 찾아주는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글자 속에 자기의 생각이 고일 수 있도록 천천히 읽고 감동할 시간을 주면서 책을 즐길 대상으로 여길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문의 : 감골도서관(031-481-370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책 읽는 안산 / 11월 첫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대화의 힘

아동



말이 통하는 아이

저자 노여심 / **출판사** 주니어김영사

초등수석교사로서 교육방법 연구에 열중하는 동화작가 노여심이 아이들에게 소통의 기술 6가지를 알려줌으로써 학교 폭력을 슬기롭게 예방하고 대처하도록 이끄는 장편동화다.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이야기'에서 소통의 방법을 찾아나간다.

청소년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

저자 박대령 / **출판사** 소울메이트

현대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일에 상처를 받았거나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심리학적 실천 방법을 다룬 책이다. 심리상담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저자의 노하우와 저자 스스로 마음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 도전했던 경험들을 담았다.

성인

아들러식 대화법

저자 도다 구미 / **출판사** 나무생각

프로이트, 융과 함께 현대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는 아들러는 자신에 대한 수용 없이는 타인을 이해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관계가 회복을 안내한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중국 동포 출신 요양보호사
박연옥 씨(54세, 고잔동)

"함께 해준 분들 위해 부끄럽지 않은 요양보호사 될 것"

고령화시대를 맞아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늘고 있다. 더불어 노인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말 좋은 정부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가족 부양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현재의 상황을 잘 감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노인요양시설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수가(酬價, 보수로 주는 대가) 반영으로 요양보호사 월급을 지급하다보니,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전문성이 떨어지고 2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묵묵히 요양보호사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박연옥 씨를 만났다. 1997년도에 전자회사 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을 시작한 박연옥 씨는 서툰 언어와 낯선 생활습관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실히 일했고 결국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고 요양보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박연옥 씨는 "제 고향은 중국 흑룡강성입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거의 비슷하겠지만, 타국에 와서 생활한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잘 만났고 그들에게 진심을 갖고 대하니 모두 잘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가 되기까지 함께 해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부끄럽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될 것"이라며 수줍게 미소를 보였다.

박연옥 씨는 요즘 부모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요양원에 출근한다. 비록 친부모도 아니고 치매 및 노인성질환 등을 앓고 있어 정신적 ·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이지만, 손길이 닿을 때마다 웃어주고 쓰다듬어주시는 분들을 보면 새벽부터 시작된 고된 일상도 어느새 행복한 시간으로 변하고 넉넉한 마음이 된다고 한다. 묵묵히 일하는 박연옥 요양보호사의 뒷모습이 참 아름답다.

김 선 명예기자_itsumo9011@naver.com

문정용·김송미 씨 경기평화통일 골든벨 '1등' 영예

"하루 빨리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이 오길…"

제4회 경기평화통일 골든벨 대회가 경기도 성남 단대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6.15경기본부와 경기평화교육센터가 주최하고 성남시, 안산 한사랑병원, 6.15사과원, 통일뉴스, 노무현 재단, 전농 경기도연맹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6.15경기본부 상임대표인 이종철 목사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평화의 씨앗들이며, 평화의 일꾼이 되어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열망과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길 바라며 2018년에는 평화통일 골든벨이 평양에서 울려퍼지기를 희망한다."고 인사했다.

50여 개 조가 참석해 2인1조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1등인 경기평화통일상의 영광은 안산에서 출전한 문정용, 김송미 조(안산새사회연대 일:다)가 차지했다.

문정용, 김송미 조는 우승 소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참석해 이런 영광을 얻어 기쁘게 생각하며 모두의 바람이겠지만 하루 빨리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이 오길 기대한다."며 "상금 일부를 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최연소상은 임재원(초4) 군이, 최고령 참가상은 이상선(77세) 씨가 받았으며, 1등, 2등에 이어 4등까지 휩쓴 안산시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어느 도시보다 뛰어나다"는 칭찬과 함께 부러움을 샀다.

김 선 명예기자_itsumo9011@naver.com

영화동아리
'시네마상록'

시민이 배우이자 제작자… "영화도 찍고 상영도 직접"

10월 29일, 안산시평생학습관 소극장에서는 시민이 만드는 영화동아리 '시네마상록'의 단편영화 상영회가 열렸다.

이번 상영회는 평생학습관 연극교실 강좌 등을 통해 연기를 접한 일반 시민들이 배우이자 제작자로, 때론 시나리오 작업까지 참여해 이루어졌다.

영화는 〈명절〉, 〈하연이의 맘마미아〉, 〈라미〉, 〈감시〉, 〈명절〉, 〈해루질〉 등 모두 5편이 상영됐으며, 뛰어난 작품성과 출연 배우들의 인상적인 연기에 관객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영화상영이 끝난 후 뒤풀이 자리에서는 인기여우상, 헐리우드상, 발연기상 등 재미있는 시상식도 이어졌다.

영화 〈명절〉에 참여했던 김길숙(61세) 씨는 "평생학습관 성인연극교실을 통해 난생 처음 연기라는 것을 접하게 됐다. 남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이 무척 두렵고 자신이 없었지만 강사님의 가르침대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김길숙 씨는 영화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을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역배우들이 주연으로 출연해 앙증맞은 연기로 즐거움을 선사한 〈하연이의 맘마미아〉는 인기여우상과 작품상을 가져가며 최다 수상의 영광도 얻었다. 이 작품에서 똑순이 역을 맡은 정가은(석호초4) 어린이는 "단편영화라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작과정도 길고 한번은 학원을 빠진 적도 있지만, 영화는 정말 재미있어요."라며 즐거워했다.

현재 '시네마상록'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와 직업의 시민들이 영상제작과 배우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주말에 모여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정도영(영상제작 크루렌즐) 대표는 "우리 동네만의 스타들이 우리 동네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어 시내버스든 어디든 공공장소의 모니터에 나온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영상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두려움을 버리고 영화제작동아리 '시네마상록'의 문을 두드려 보자.

☏ 문의 : 010-8345-2404(영화제작동아리 '시네마상록')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학교와 학생, 마을이 함께하는 매점 '와글바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며 학부모와 학교, 학생, 마을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친 신길고등학교 매점 '와글바글'이 인기다.

'신길고 마을교육공동체 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점 '와글바글'은 이익창출보다는 안산지역 협동조합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문화 정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익금은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매점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도 대부분 조합원인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정한다. 점심시간에는 협동조합 동아리 학생들이 조를 이뤄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매점에서 만난 학생들은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와 투명한 경영, 주체적인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다.

신길고등학교 윤갑희 교장은 "업자에게 임대를 주면 수월한데 어렵게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의무감과 아이들 스스로 협동조합을 통해 실생활에서 공정무역과 사회적 경제를 배우고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길고협동조합 민경란 이사장은 "우리가 왜 좋은 먹거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비자교육도 자주하고 있으며, 장학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학교매점에 주인의식을 갖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안산 60여개 '나들가게'
첫 그랜드 세일 … 16일까지 최대 반값 할인

안산시 '나들가게'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총 7일 동안 첫 번째 그랜드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안산시 관내 나들가게 6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공동 세일행사는 70여 가지 품목을 20~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설문조사에 응답해 준 고객들에게는 에코백(echo bag) 및 위생장갑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나들가게'는 중소기업청이 대형할인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 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을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마련된 지원 정책으로, '정이 있어 내 집 같이 편하고, 나들이 하고 싶은 가게'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2월 나들가게 육성 선도 지역으로 선정돼 경영개선 컨설팅, 점포 리뉴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용상품 개발, 지역 나들가게 공동 세일전 등을 패키지로 지원 받는다. 안산시는 국비를 포함한 1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안산시 관내에는 98여개의 나들가게가 있는데, 이 중 74여개 업체 회원들이 지난여름 나들가게 경영대학을 이수해 마케팅 · 경영기법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경영대학을 수료한 나들가게 중 희망하는 업체 60여 개가 이번 공동세일행사에 참여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 세일 행사를 통해 나들가게의 공동구매 및 물류효율화를 활성화시켜 점포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실질적인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겨울 나들가게에서 가격도 인심도 따뜻한 소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29)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홍성담 작가의
세월호참사 기억프로젝트2.5 '들숨:날숨'

그 날, 그 배 안에 있던 아이들의 숨소리…

세월호 참사 천일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1월 9일이다.

이때까지 416기억전시관에서는 홍성담 작가의 세월호참사 기억프로젝트2.5 '들숨:날숨'이 전시된다. 너무 아파서 우리가 그동안 차마 상상할 수 없었던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직면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아이들이 그 배안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을지, 엄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 아이들의 시선으로 상상한 풍경들이 아프고 서늘하게 담겨있다.

아이들이 배안에 있는 모습은 가슴을 턱 막히게 했다. 간신히 들이마시고 내뱉던 숨소리가 선연히 눈앞에 펼쳐졌다. 선내 창문에 붙어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차오르는 물속에서 간신히 손을 내밀고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물에 잠긴 세월호 선내에서 잠수사가 발견한 아이들의 모습.

그 힘겨운 들숨과 날숨의 고통을 상상해 볼 수 없다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땅에 희박하게 남아있던 공기조차 느끼지 못 할 터다. 열두 점의 아픈 그림들은 힘겹게나마 이곳에 숨구멍 하나를 간신히 뚫어주고 있을지 모른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곳에서 도슨트(docent, 해설가)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기울어진 세월호 안 아이들 모습을 설명하며 몇 번이고 무너져 내리지만, 울먹이면서도 다시 설명을 이어나간다. 마지막 순간, 힘을 모아 꼬마아이를 배위로 올려 보내고,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와 끈으로나마 연결되고자 했던 아이들 마음처럼 엄마들도 힘을 내는 것일 터.

바다가 된 아이들이, 별이 된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naver.com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 '신안산선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 의결

본회의의 한 장면.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25일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한 이후 27일까지 안건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설치 건의안' 등 안건 28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민근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의 안건 처리 과정을 되짚으며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므로 향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의 진중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234회 임시회 처리 안건 목록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수정의결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수정의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수정의결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의결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선부청소년, 안산청소년, 일동청소년, 사동디지털) : 원안가결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기행 부결 / 문복 수정의결 / 도환 원안가결
2017년도 출자금 운영 계획안 : 수정의결
2016년 제3회 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 : 원안가결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의결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 수정의결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수정의결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 원안가결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설치 건의안 : 원안가결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상임위 보류

안산시의회, 일동경로식당 봉사

"어르신, 커피도 한 잔 하세요"

일동경로식당을 찾아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의원들.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 의원들이 지난 21일 '찾아가는 나눔의 날'을 맞아 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여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민근 의장과 유화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이상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성준모, 윤석진, 주미희 의원은 이날 오전 상록구 일동에 위치한 '일동경로식당'을 찾아 3시간 가량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름다운 교회'(목사 정철욱)가 운영하는 일동경로식당은 매일 인근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날 식당을 찾은 이용객들에게 손수 음식을 배식하고 잔반처리와 설거지, 커피 대접을 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고, 봉사 후에는 식당 관계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며 식당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민근 의장, 대만 초등학교 관계자 '접견'

"미래 세대간의 이해를 넓혀라"

이민근 의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25일 의회를 방문한 대만 담수구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접견 후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25일 시의회를 방문한 대만 담수구 초등학교 관계자들을 접견했다.

이민근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대만 담수구 '등공국민소학교'와 '천생국민소학교'의 교장, 교사, 학부모 등의 일행을 맞아 환담하고 양 도시 교육계의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등공국민소학교는 안산의 호동초등학교와, 천생국민소학교는 안산 성포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학교들은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폭을 키우고 있다.

이민근 의장은 "양 도시의 더 많은 학교들이 교류에 나섬으로써 미래 세대 간의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두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크레센도(crescendo); 점점 세게…

아직 해도 다 떠오르지 못한 이른 시각, 도서관에 줄을 선 우리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걸까?
높이 더 높이, 세게 더 세게 오직 강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회. 이젠 디크레센도(decresscendo) ; 점점 여리게 …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안산시에 하고 싶은 말! 말! 말!

안녕하세요 안산에 산지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민입니다. 직장이 반월공단인 저는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바쁜 출·퇴근 시간에 모든 버스가 원곡동주민센터를 경유해서 안산역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원곡본동주민센터를 지나지 않는 버스 노선을 만들어 주세요. 너무 혼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3개 노선이 원곡로 원곡본동주민센터를 경유하여 안산역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원곡본동주민센터를 제외할 경우 기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어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부2동주민센터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을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타 지역은 지역구 또는 동별로 날짜 지정하여 접종을 실시한다는데…개인병원에서 접종하면 너무 비쌉니다. 시장님이라면 꼭 고민 해봐주세요. 보건소 의료혜택은 누구나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건강해야 그 도시도 밝고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많은 인원 방문에 따른 사고방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민간의료기관에서 2013년부터는 어린이국가예방접종을, 2014년부터는 노인독감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만성호흡기질환 · 면역 저하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감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원보건소

공단 내에 있는 공원의 전등이 나가서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음침해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겉보기에는 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 민원인도 자주 이용하고 공단 내 사람들도 꽤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는 방문하셔서 불이나간 전구를 한개도 빠짐없이 체크해서 교체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단 내 '22호 근린공원' 고장 난 전등은 10월 19일 현장 확인을 통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조명 및 기타 시설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청 공원과

시민의 의견을 크게 듣겠습니다

시장에 바란다 https://mayor.iansan.net
사람중심 이야기 마당(매월) https://sotong.iansan.net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동 방문(월 2회)
안산드림TV http://ansandream.tv
시민제안 http://idea.iansan.net

칼럼

메데인에 있는 케이블카

도시 교통에 대한 새로운 생각

대부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메데인(Medellin)은 총인구 391만 명이 살고 있는 콜롬비아 제2의 도시로, 1990년대까지 마약, 갱단, 살인과 폭력으로 악명이 높았다. 1990년에서 199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6천여 명 이상이 살인으로 희생되었다는 통계자료가 이를 잘 보여준다.

1998년 이 도시에 세르히오 파하르도라는 시장이 집권하면서 마약과 갱단 문제 감소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남은 과제도 있었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파벨라(빈민가)는 대부분 소위 '달동네'와도 같은 가파른 언덕으로 도심으로의 통근이 어려웠다. 매일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은 빈곤층이 직업을 갖고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고, 이들의 가난이 계속되면 언제 다시 마약과 갱단의 손길이 뻗치게 될지 모른다는 문제도 있었다.

파하르도와 다음 시장인 루이스 페레즈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높은 언덕에 있는 빈곤층 마을의 도심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메트로 케이블은 산비탈 파벨라에서 지하철역까지 4개의 역을 거쳐 도달하게 만들고 경사가 30도가 넘는 가파른 언덕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동성을 높였다. 그 결과 젊은 사람이 걸어도 40분 걸리던 거리가 15분이 채 안 되는 시간대로 줄어들었다. 또한 지역 안정을 위해 경찰력을 증가시켰고, 케이블카 역과 에스컬레이터 환승지마다 인력을 배치하여 보행자를 돕고 치안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빈민층의 직업접근성이 높아져 지역소득과 교육수준도 더불어 높아졌다. 지역의 안전이 좋아지자 살인율도 크게 줄어들었고, 주민들이 지역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전 세계에 하나뿐인 빈민가 메트로 케이블을 보고 싶어 하며 관광객도 늘었다. 이로 인한 지역소득 증가도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 유입으로 지역의 개방정도가 커지면서 폭력과 범죄는 더욱 줄었다.

접근성이 좋아진 언덕배기에 큰 규모의 왕립도서관을 지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었으나 도심에서 산 위로 올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공공건물은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에 충분했으며, 지역의 명소로 떠오름과 동시에 청소년의 학습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수준을 높여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 모든 성공이 인프라 구축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에 딱 맞는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메데인의 시장들과 건축가 알레한드로 에체베리가 하드웨어적 접근과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모두 포괄하는 마스터 플랜을 세웠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변화를 관리했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해 슬럼가의 일반 주민 뿐 아니라 갱단이나 폭력배, 비정규군 지도자, 무장단체 등과도 협력하는 획기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도시계획을 사회계층간 이동성 강화와 형평성 촉진의 도구로 봄으로써 사회 통합과 개선을 최우선으로 지역에 적합한 계획과 인프라를 세울 수 있었다. 그 결과 메데인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관광도시로 떠오름과 동시에 전 구성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지역 발전도 가져올 수 있었다. 물론 안산은 범죄도시도 아니고, 지역소득 역시 높지만 메데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시내 교통은 편리하지만 대부도의 안산시내 접근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편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메데인의 시도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김 성 욱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독자기고

2016 스토리텔링 진로 엑스포를 다녀와서…

"고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찬성' … 멍하니 있어도 창조의 싹 나온다"

두근두근 진로여행 드림몰 고(Go)!

'즐거운 공부, 재밌는 희망진로 찾기' 성균관대 교육학과 도승이 교수의 강연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갔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양육하는 엄마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늘 고민이었고, 답을 찾는 중이었다. 교육에 관한 많은 정보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나와 자녀들에게 맞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책읽기만 꾸준히 시키고 있다. 생각보다 행사는 성대하게 준비되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웅장하고 생기 있게 오프닝을 장식해 줬고, 안산시장과 청소년, 교육기관에서도 축사를 해 줬다.

별망중학교와 국제비즈니스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해돋이극장을 가득 채우고 도승이 교수의 강연을 들었다. 시대는 변하고, 미래에는 없어지는 직업들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이런 진로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광장에는 여러 대학에서 부스를 운영하고, 경기남부지방 경찰청 홍보단에서도 나와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탐색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풍성한 먹거리들이 있어서 햇살 좋은 가을날을 더 풍성했던 것 같다. 출출하던 차에 붕어빵 기계 앞에 줄을 서고 따끈한 붕어 세 마리를 낚아서 맛있게 먹으며 안산천을 걸었다.

'우리 아들 학교도 이런 행사에 참여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 꿈을 꾸고 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경기도도 내년부터는 고교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나는 찬성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찾기 위해서는 학교의 틀보다는 자율에 맡기고, 때론 멍~ 하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도 창조의 싹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 같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왕도는 없는 것 같다. 부모 되는 게 쉽지 않고, 부모도 꾸준히 배우고 노력해야 자녀가 꿈을 찾고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진로체험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 **이옥자**(단원구 광덕동로 25)

4대 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산!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 **성 폭 력** 여청수사팀 담당구역 지정 및 집중순찰로 성폭력 범죄예방 강화
안산시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운영 (22시~ 01시 운영)

○ **학교폭력** 모든 초·중·고에 학교전담경찰관 지정, 피해학생 멘토링 실시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2년 연속 감소

○ **가정폭력** 가정폭력 사후 모니터링, 의료지원, 알코올 가족상담연계
가해자 접근금지등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

○ **불량식품** 불량식품수사전담반 설치, 불량식품의 신속한 압수 및 폐기처리

학교폭력 상담·신고는 **117** 가정폭력 상담은 **1366** 범죄신고는 **112**
안산단원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

2016 시정소식지 만족도 설문조사

기간: 2016.11.9~11.28 (20일간)

안녕하십니까?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구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 30분을 추첨해서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립니다.
상품발송을 위한 핸드폰 번호를 꼭 기재해주세요.

○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세요!**
시청 홈페이지(http://www.iansan.net) 접속 => 우측 배너클릭

○ **e-브라보안산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https://www.bravoansan.net) 접속 => 우측 배너클릭

○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안산시 홈페이지=> 시정안내=> 시정소식=> 새소식
또는 공지사항에서 설문지를 다운받으신 후
bravo@iansan.net으로 보내주세요

2017년 1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 **접수기간** 2016. 11. 14(월) ~ 11. 23(수)
○ **모집인원** 기록물정리사업 등 106개 사업 250명
○ **접수장소** 신청인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
○ **근무여건** 주 5일(5시간/일), 주차 · 월차수당 별도, 4대보험 가입
만 65세 이상(1951.12.31이전 출생자) 1일 3시간 이내
○ **문 의** 일자리정책과 031-481-3279

시민공개강좌

○ **일 시** 2016. 11. 14(월) 16:00~18:00
○ **장 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강 사**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 **주 제**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과 시민
○ **문 의** 여성비전센터 031-481-2762